

中共의 경제개방정책 추이와 經濟特區 현황

1. 머리말

中共은 1978년 12월의 제11기 中國共產黨 전국대표대회 제3차 中央委員會全體會議(11期 全大會 3中全會)를 계기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4개부문 현대화를 위해 안으로 국내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도모하는 한편, 밖으로는 경제개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여 오고 있다.

즉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고 대외경제면에서 무역거래의 다원화,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외환거래 일부허용과 함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이 추진되었다. 1978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제개혁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中共경제는 그간 大躍進運動(1958~60)과 文化大革命(1966~76)의 과정을 통해 취약해졌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을 시현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中共은 연율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왔으며, 1987년에 9.4%의 성장을 달성한 데 이어 1988년에도 7~9%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제개혁과 이에 따른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욕구 급증, 설비투자의 경쟁적 확대, 재정 및 통화의 팽창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 국제수지 불안 등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987년 11월의 제13기 中國共產黨 全國代表大

會(13期 全大會)와 1988년 3월의 제7기 全國人民代表大會(7期 全人大)에서 개혁파의 기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치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중공은 경기과열현상 진정을 위한 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共의 개방정책추진은 방대한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의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경제개방의 일환으로 中共은 1980년에 연안 4개지역에 經濟特區를 설치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경제기술개발구 또는 경제개방구의 다양한 형태로 사실상 연안 전지역에 걸쳐 외자문호를 개방하였다.

이 중 경제특구는 中共이 경제개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전초라 할 수 있는바, 本稿에서는 中共의 대외개방정책 추이와 經濟特區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2. 경제개방정책 추이

中共은 1978년말 11期 全大會 3中全會를 통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정책과 함께 경제 개방정책을 도입기로 결정함으로써 종래의 실질적인 폐쇄경제체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제개방정책에 대해 中共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현행 제7차 5개년개발계획(1986~90)의 내용에 의하면, 농업, 공업, 국방 그리고 과학·기술의 4개부문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며 그 수단으로 대외교류를 촉진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1949년 共產政權成立 이후 中共이 대외교류대상을 「사회주의체제국가」 또는 「억압받고 있는 第3世界 인민」을 중심으로 제한하여 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978년 이후 대외개방의 주요대상은 그간 中共이 이데올로기면에서 적대시하였던 美國을 비롯한 西歐 자본주의체국이 되고 있다. 즉 해외에의 시찰단 및 유학생 대거파견, 외국인전문가의 빈번한 국내초빙에서부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의 가입과 활동확대는 물론, 외국인의 中共國內 여행과 관광, 그리고 本稿의 논의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경제특구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이후의 경제개방정책은 급격한 대외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일면 현재제에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혼란발생의 가능성(亂)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中共은 통제의 緩和(放)를 추진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통제의 強化(收)를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정권성립 이후 中共의 대외경제정책은 통상 다음의 4단계로 나뉘어진다.

(1) 第1期(1950~60)

1949년 이후 經濟復興期(1949~52)와 제1차 5개년개발계획 기간(1953~57)중에 中共은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소련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주로 도입하였으며, 해외의 華僑자본 유치에 노력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외자도입을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업화를 표방한 대약진운동 기간(1958~60)중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東西 양진영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中·蘇이념 분쟁이 시작, 양국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소련의 지원이 중단된 데 이어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약진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2) 第2期(1961~69)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고 대약진운동이 실패함에 따라 中共은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對蘇關係 악화로 中共은 제1기중 도입하였던 루블借款의 조기상환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25動亂 개입으로 인해 서방세계로부터 이미 경제부채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中共의 대외경제관계를 모두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中共은 루블借款 상환부담과 국내경제피폐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내걸고 대외적으로는 극히 필수적인 무역을 제외하고는 차관, 원조 등 외자도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재건을 목표로 한 신경제정책(1961~65)을 채택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자력갱생, 즉 폐쇄경제 정책기조는 더욱 강화되었고 中共경제는 다시 한번 답보상태에 들어서게 되었다.

(3) 第3期(1970~77)

1970년대 들어 中共은 1976년 毛澤東 사망시까지 계속된 문화대혁명의 영향 속에서도 폐쇄정책을 다소 완화하여 중장기 무역신용 등의 형태로 서구제국의 외자를 제한적으로나마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1년 10월 UN가입과 1972년 2월의 리처드 닉슨 美國대통령의 中共방문을 계기로 對西方관계가 호전되면서 中共은 무역신용거래를 중심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6년의 毛澤東 사후에는 급진좌경세력이었던 西人幫이 실각하고 鄧小平을 비롯한 개혁파들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경제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中共에서는 경제도약을 위한 현대화계획이 이미 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76년말 이후 鄧小平·華國鋒체제를 통해 정치기반이 안정되면서 현대화계획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4) 第4期(1978년 이후)

鄧小平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中共은 실용주의노선 위에 국가현대화계획에 착수하였으며, 주요한 추진전략의 하나로 대외경제개방을 채택하였다. 中共은 1978년 12월의 11期 全大會 3中全會를 통해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을 공식 천명한 이래 단계적으로 경제개방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른 제반조치들은 <表-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와 선진기술 도입에 의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기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구증가를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생활수준을 크게 높

〈表-1〉 經濟開放 관련 주요조치

| | | 主 要 措 置 |
|-------|-----|--|
| 1978. | 12. | ○ 대외개방 정식 결정 |
| 1979. | 1. | ○ 蛇口工業區 설치 ○ 中外合資經營企業法 공포 ○ 經濟特區 설치 결정 |
| 1980. | 4. | ○ 國際通貨基金가입 |
| | 5. | ○ 세계은행 가입 |
| | 8. | ○ 深圳, 珠海, 汕頭特區 설치 |
| | 9. | ○ 中外合資企業所得稅法 공포 |
| | 10. | ○ 廈門特區 설치 |
| 1981. | 12. | ○ 外國企業所得稅法 공포 |
| 1982. | 12. | ○ 新憲法 공포(외국기업의 진출을 인정) |
| 1983. | 3. | ○ 商標法 공포 |
| | 4. | ○ 합자기업의 감세등 6개 항목 우대조치 발표 |
| | 9. | ○ 中外合資企業法實施條例 공포 |
| 1984. | 3. | ○ 特許法 공포 |
| | 4. | ○ 海南島 및 14개 연안도시 개방 발표 |
| | 5. | ○ 합자조건 완화발표(100% 外資企業 승인, 투자기간 연장, 국내판매 제한완화) |
| | 9. | ○ 무역제도 개혁 승인(무역기업의 독립) |
| | 11. | ○ 經濟特區 및 연안개방도시 기업소득세와 工商統一稅의 감면에 관한 잠정규정 공포 |
| 1985. | 1. | ○ 長江, 珠江 및 閩南三角지구 등 3개지역 경제개방구로 지정 |
| | 3. | ○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조약 가입 ○ 涉外經濟契約法 시행 ○ 中外合資企業會計제도 시행 |
| | 4. | ○ 特許法實施條例 공포 |
| 1986. | 1. | ○ 合資法實施條例 개정(합자기한 연장) ○ 中外合資企業의 외환수지 균형에 관한 규정 공포 |
| | 3. | ○ 아시아개발은행가입 |
| | 4. | ○ 外資企業法 채택 |
| 1986. | 6. | ○ 土地管理法 채택(耕地濫用 규제) |
| | 8. | ○ 瀋陽市에 中共 최초의 증권거래소 개설 |
| | 9. | ○ 上海市에 증권시장 발족 |
| | 10. | ○ 외국인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공포 |
| | 11. | ○ 上海市에 최초의 외환거래소 설치 |
| | 12. | ○ 企業 破產法(試行法) 채택 |
| 1987. | 3. | ○ 6期 全人大 5차회의 개최,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강화 발표 |
| | 4. | ○ 福建省, 廣東省, 大連, 天津, 上海市, 中國銀行,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 交通銀行, 光大實業公司 등 9개 지방정부 및 기관에 외자도입에 관한 권한 확대 |
| | 8. | ○ 海南島의 省 승격 결정 |
| | 10. | ○ 中外合資企業의 기제 및 전자제품 수입대체관리 실시세칙 공포 ○ 13期 全大會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제시(개방, 개혁의 이론적 근거 마련) |
| | 12. | ○ 廣東省(深圳)에서 토지경매 최초 실시 |

| 主 要 措 置 | |
|----------|--|
| 1988. 1. | ○山東반도 및 膠東반도에 외국인투자 개방기로 결정 |
| 2. | ○廣州市 투자유치단 홍콩주재 韓國기업 대상으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
| 3. | ○上海市 토지경매 실시 ○홍콩에 무역대표부 설치 ○7期 全人大에서 海南島의 省 승격 추진 및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 私企業활동 및 토지사유권 전매를 인정하는 法制 등 제정 ○외환거래에 관한 규정 공포 (금융기관을 통해 現·先物換去來 가능) |
| 4. | ○經濟開放區 확대 (연안 18개시 및 122개縣 신규지정) |

〈資料〉日本 中國研究所, 中國年鑑 1987年版 등에 의거 작성

〈表-2〉中共의 長期經濟計劃 개요

| | 基礎確立 및 整理期 | | 成長 加速期 | | |
|--------------|---------------------|-------------|---------------|-----------|------|
| | 제6차 5개년계획 | 第7차 5개년계획 | 제8차 5개년계획 | 제9차 5개년계획 | |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 인구(억명) | 9.9 ... 年1.3%增 ... | 10.6 | 1.0%이내增 | 12.0 | |
| ·1인당 GNP(달러) | 291 ... 年2.5%增 ... | 310 | 5.7%增 | 1,000 | |
| 農工業생산(억원) | 7,159 ... 年 4%增 ... | 8,710 | 7.2%增 | 28,000 | |
| 農業생산(억원) | 2,187 ... 年 4%增 ... | 2,660 | 5.2%增 | 6,000 | |
| 食糧생산(억톤) | 3.2 ... 年2.3%增 ... | 3.6 | 1.8%增 | 4.6 | |
| 工業생산(억원) | 4,972 ... 年 4%增 ... | 6,050 | 7.7%增 | 22,000 | |
| 發電量(억kwh) | 3,006 ... 年 4%增 ... | 3,600 | 7.7%增 | 7,800 | |
| 貿易規模(억달러) | 378 ... 年8.7%增 ... | 574 | 7.2%增 | 1,600 | |

〈資料〉國會圖書館 資料局, 中共의 對外開放政策과 國際關係, 1984. 11, p.45 등에 의거 작성

이겠다는 현대화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볼 때 經濟特區는 中共의 경제개방 및 개혁의지를 투영하는 일차적인 실험장이라 하겠다.

3. 경제특구의 설치·운영현황

(1) 經濟特區설치의 의의

中共의 경제특구설치는 경제개방정책이 구체화된 첫번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경제특구설치의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中共측 경제학자의 정의¹⁾를 소개하면, 「經

濟特區란 互惠平等的 원칙하에 대외경제협력 및 기술교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方式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권영토 가운데 일정 지역을 정하여 외국기업에게 약간의 편의와 利點을 주고 외국자본이 투입되어 사업을 영위, 종합적인 경제활동을 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을 말한다. 즉 外國資本과 기술, 관리경험 등을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經濟特區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뜻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경제제도란 中共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개방의 폭이 넓고 외국기업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며, 稅制, 용지사용, 노동력 확보나 원자재의 조달, 출입국절차 등에서 여러가지 우대 조치를 부여하는 대신 외국자본과 기술, 경영기법 등을

1) 國會圖書館 資料局, 中共의 對外經濟政策과 國際關係, 1984. 11, p. 62

흡수하는 동시에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을 통해 自國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中共의 經濟特區(Special economic zone : SEZ)는 다른 開途國에 설치된 輸出加工地域(Export processing zone : EPZ)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FTZ)와 그 성격이 유사하며, 구체적으로는 印度의 칸드라(Kandla) EPZ, 臺灣의 高雄EPZ, 필리핀의 바탄(Bataan) EPZ, 우리나라의 馬山 輸出自由地域 등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경제특구는 다른 開途國들의 EPZ나 FTZ로서의 역할 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장경제메커니즘을 도입한 경제체제개혁의 실험장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는 장래에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회복 이후의 통치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그 모델로 삼으려는 목적과 함께 더욱 장기적으로는 臺灣 통일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經濟特區의 운영현황

1978년부터 中共은 스리랑카의 카투냐케(Katunayke) EPZ와 필리핀의 바탄 EPZ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1980년 8월에 우선 深圳, 珠海, 汕頭 經濟特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어 동년 10월에는 廈門特區의 설치도 인가하였다.²⁾

당초에는 이 중 深圳과 珠海가 상업과 관광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특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汕頭와 廈門은 제조업에 치중한 EPZ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주로 華僑자본에 의한 수출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汕頭와 廈門도 종합적인 경제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 4개 經濟特區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深圳 經濟特區

深圳特區는 廣東省의 珠江 하구에 위치하며, 홍콩의 新界地(New Territory)와는 하천을 경계로 접해 있다.

2) 1988년 3월 經濟特區로 추가 지정된 海南島는 사실상 未開發狀態에 있으므로 本文에서는 별도로 설명치 않기로 함.

이 特區가 위치한 지역은 1979년에 舊 寶安縣에서 분리 신설된 深圳市의 일부이며 면적은 327km²으로 홍콩의 약 1/3에 상당하는데, 그 중 都市건설용지는 98km²로 되어 있다. 그리고 深圳市의 인구는 약 32만명이며 이 중 10만여명이 特區內에 거주하고 있다.

中共은 深圳特區가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지역이 中共내에서 경제개발 및 공업화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深圳市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同市는 深圳特區를 크게 3개지역으로 나누어 ① 大鵬灣에 면하고 홍콩과 海路로 연결된 東北연안은 호텔 등 관광시설을 갖춘 휴양지로 개발하며, ② 도심지에는 유통 시설, 상가, 사무실건물 등을 건설하고, 남쪽에는 외자와 합작으로 국제공항을 건설하며 ③ 서부지역은 7개의 공업지구로 조성, 외자를 집중 유치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東北部의 휴양지개발은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반면, 도심지의 상가와 공업지구의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 중 가장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도심에서 서쪽 30km지점에 위치한 南頭반도의 蛇口工業區인데, 同 공업구의 개발은 홍콩소재 中共系 해운회사인 招商局輪船股份有限公司(China Merchants Steam Navigation Co.)가 맡고 있으며, 同社는 蛇口工業區 진출 희망 외국기업에게 협상주선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蛇口工業區는 深圳灣을 매립하여 건설한 부두시설을 비롯하여 수송, 통신, 전력, 용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中共은 深圳特區를 마이크로컴퓨터 및 컬러 TV를 비롯하여 電子, 機械, 石油化學, 纖維, 食品加工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자유치에 노력하여 왔으나, 中共측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조업부문보다는 부동산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고, 투자주체들도 홍콩과 마카오의 華僑자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共측 발표에 의하면, 1985년말 현재 深圳特區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가실적은 계약기준으로 4,708건에 35.6억달러에 달하였으나, 그 중 9.4억달러만이 실행되었다.

나. 珠海 經濟特區

(表-3) 經濟特區의 구역별 개발추진 내용

| | | 내 | 용 |
|------|-------|--|---|
| 深圳特區 | 東 部 | 沙頭角(상업, 주택), 鹽田(農·漁業, 공업), 大·小梅沙(관광) | |
| | 中 部 | 羅湖市街區(상업·주택·공업), 深圳舊市街區(상업, 주택, 공업), 蓮塘(공업), 上步(공업, 주택, 창고), 福田新市區(중합), 車公廟區(중합), 香密湖區(觀光) | |
| | 西 部 | 沙河區(공업), 蛇口工業區(공업), 向海區(중합), 西麗湖區(觀光), 赤灣港區(공업, 항만, 석유기지), 南頭·寶安縣城(중합) | |
| 珠海特區 | 拱北區 | 特區의 행정·금융·상업 센터 | |
| | 夏灣區 | 建村工業 중심의 공업구 | |
| | 北嶺區 | 경공업, 전자공업, 방직공업을 유치. 特區의 과학기술·훈련센터를 배치 | |
| | 石花山區 | 교통·운송의 중심지구 | |
| | 吉大區 | 관광, 상업, 무역 | |
| | 銀坑區 | 관광, 주택 | |
| 汕頭特區 | 龍湖區 | 공업, 창고, 생활, 금융, 상업, 관광, 농업 | |
| | 廣澳區 | 운송, 南海유전개발의 후방기지 | |
| 廈門特區 | 廈門島全體 | 湖里(공업), 廈門(상업, 항만), 杏林(공업), 鼓浪嶼(관광) | |

마카오에 인접한 珠海市는 560km²의 육지와 104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 1천km²에 인구는 약 1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15.2km²가 經濟特區로 지정되어 있다. 당초 珠海特區의 면적은 6.7km²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 6월에 현재 면적으로 확대되었다. 同시는 珠海特區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수려한 景觀을 이용한 관광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부문의 신기술도입에 중점을 두고 식품가공(과자류, 음료, 통조림 등), 建築資材(유리, 타일, 알루미늄, 금속재료 등), 섬유(모방, 면방, 린넨, 합성피혁의류, 봉제, 플라스틱 등)와 電子部品(가전제품과 기술 집약 전자제품 부품)등 분야의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珠海特區는 1985년중 593개 프로젝트에 약 2.6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허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다. 汕頭 經濟特區

汕頭市는 廣東省 동북부에 위치한 항구로서 면적 256km²에 인구는 약 7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동부연안 52.6km²가 汕頭特區로 지정되어 서비스부문에 중점을 둔 龍湖區(22.6km²)와 수송, 통신등에 중점을 둔 廣奧區(30km²)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汕頭특구는 여타 경제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 항공, 해운통신 등에 중점을

둔 보조지역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하겠으며, 제조업부문에서는 石油化學, 電子, 超音波機器, 纖維, 食品, 建築資材, 플라스틱에 역점을 두고 있고, 원예, 수경을 포함한 農·牧畜개발단지에도 약 10km²의 면적을 할애하고 있다.

汕頭特區에는 1985년중 총 145건에 48.3백만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가 허가되었으며 그중 17.2백만달러 정도의 투자가 실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라. 廈門 經濟特區

廈門市는 福建省의 남쪽 삼각주에 위치한 주요항구로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臺灣과 면해 있으며, 컨테이너부두시설과 국제공항을 갖추고 동남아 각지와 해운과 항공으로 연결되고 있다. 廈門特區는 1980년 12월부터 廈門島 서부 湖里에 2.5km²의 특구건설을 시작한 이후 1984년 廈門島와 육지사이의 섬 鼓浪嶼를 비롯한 4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特區의 전체면적이 131km²에 이르게 되었다. 廈門특구는 그간 기본환경의 조성에 치중하여 오다가 1983년 이후 사업환경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는 판단 아래 섬유 및 식료품 등 경공업에서 電子, 마이크로컴퓨터, 寫眞素材, 精密機器, 建築新素材, 生化學등에 이르는 기술 집약산업과 수송, 통신 및 관광분야에 대한 외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림-1〉 經濟特區와 14개 沿岸開放都市의 위치



中共

1985년말 현재 廈門특구에는 총 105건에 4.1억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 여타 開放地域과의 관계와 外資도입효과

經濟特區를 설치 운영한 경험으로 대외개방정책에 자신감을 얻은 中共은 1984년 4월에 大連에서 北海에 이르는 14개 沿岸都市의 일부지역을 經濟技術開發區(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로 지정하고 海南島를 特別行政區域으로 지정 개방하였다. 이어 1985년 1월에는 上海, 廈門 및 深圳을 중심으로 하는 長江, 閩南 및 珠江의 각 삼각주 일대를 經濟開放區(Open

economic zone)로 지정하였으며 다시 1988년 3월에 海南島 전역을 경제특구화함과 아울러 4월에는 연안 18개 市와 122개 縣을 경제개방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로써 中共의 대외경제개방지역은 초기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點에서 주요 沿岸都市·經濟技術開發區의 線으로, 그리고 線에서 다시 연안 全地域을 경제개방구로 지정, 面으로 확대되었다 하겠다.

경제개방을 연안 전지역에 확대 적용기로 하면서 中共은 연안을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① 渤海灣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日本 및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감안한

(表-4) 經濟特區와 여타 개방지역의 우대조치

| | 經濟特區 | 沿岸14都市內 經濟技術開發區 | 都市地域 |
|--|--|---|---|
| 對象地域 | 深圳, 珠海, 廈門, 汕頭 | 大連, 秦皇島, 天津, 烟臺,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温州, 福州, 廣州, 湛江, 北海의 각 開發區 | 左記 14개시지역(開發區제외) 및 珠海, 廈門, 汕頭의 각 시지역 |
| 企業所得稅 ¹⁾ | 15% 원칙, 輸出企業은 10% 단, (1) 공업, 교통, 운수업, 農·林·牧畜業 등에서 경영기간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利益發生時點으로 부터 • 1~2년간 : 면세 • 3~5년간 : 50% 감면 (2) 서비스업중 海外投資資金額이 5 백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1년간 : 면세 • 2~3년간 : 50% 감면 | 15% 원칙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左와 동일 | (1) 下記 프로젝트는 15% 적용가능 기술·지식집약형프로젝트, 외자투자액 30백만달러 이상 또는 회수에 장기를 요하는 프로젝트, 에너지·교통·항만건설 프로젝트 (2) 별도지정 업종 ²⁾ 은 법률에 정한 세율의 80%로 함 |
| 地方所得稅 | 特區人民政府가 감세를 결정함 | 市政府가 감세를 결정함 | 左 同 |
| 合營企業의 利潤送金 | 免 稅 | 免 稅 | 10% |
| 配當金, 이자, 리스料, 로열티 등에 관계된 소득세(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 | 10% 원칙 단, 稅減免은 特區人民政府가 결정함 | 10% 원칙 단, 稅減免은 市政府가 결정함 | 左 同 |

| | 經濟特區 | 沿岸14都市內 經濟技術開發區 | 都市地域 |
|----------------|---|---|---|
| 工商統一稅 (輸入品) | 鐵物油, 담배, 酒類 등의 수입시 50%감세하며 기타 수입화물은 면세 | 建築材料, 생산설비, 原材料, 부품, 교통수단, 업무용품 등의 수입시 면세 | 생산설비, 영업용설비, 건축재료, 교통수단, 사무용품 등의 수입시 면세 |
| 工商統一稅 (輸出品) | 공산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제한품 및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工商統一稅는 면세 | 左 同 | 左 同 |
| 工商統一稅 (內販) | 면세로 수입한 원료, 부품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국내시판시 과세 | 左 同 | 左 同 |

註 1) 국내기업의 소득세율은 30%로 되어 있음.

2) 機械, 電子, 冶金, 化學, 건설자재, 방직, 포장재료, 의료기기, 제약, 농림어업 및 기타 가공업, 건축업 등임.

〈資料〉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nts Inc., The China Investment Guide 3rd ed., 1986, pp.719-722에 의거 작성

華北經濟綜合區는 重工業과 化學공업에 개발중점을 두고 있고, ②長江三角洲와 閩南三角洲를 중심으로 日本, 홍콩, 마카오 및 臺灣과의 경제협력을 겨냥한 華東經濟綜合區는 경공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③珠江三角洲를 중심으로 홍콩, 마카오 및 東南亞제국과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한 華南經濟綜合區는 농업 및 경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中共은 經濟特區와 經濟技術開發區, 경제개방구에 대해 별다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세 개방형태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현행 제7차 5개년개발계획에 경제특구는 선진기술흡수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수출산업육성에 운영중점을 두며, 經濟技術開發區는 무역, 기술도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외국과의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경제개방구는 농업을 기반으로 외자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유통구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경제구조를 전환시켜 나가는 데에 각각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따름이다.

中共이 1984년 12월부터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優待措置를 관련규정인 '경제특구 및 연안개방도시 기업소득세와 工商統一稅의 감면에 관한 잠정규정'(Interim Provisions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RC on Reduction in or Exemption

from Enterprise Income Tax and Consolidated Industrial and Commercial Tax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s and Fourteen Coastal Cities)을 통해 요약해 보면 〈表 4〉와 같다. 그리고 中共 國務院은 1986년 10월에 「외국인투자장려에 관한 規程」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각 지역별로 외자관련규정이 정비되었는데, 대체로 1984년 12월부터 시행된 상기 잠정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토지사용료,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1986년말 현재 경제특구의 차관도입 및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총 21억달러로 中共 전체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면적이나 인구에서 特區가 접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經濟特區가 中共경제개방의 尖兵 역할을

〈表-5〉 經濟開放地域別 외자도입현황

(단위: 억달러, %)

| | 經濟特區 | | | | | 14개 沿岸開 放都市 | 其他 地域 | 合計 |
|-----|------|-----|-----|-----|------|-------------------|----------|-------|
| | 深圳 | 珠海 | 汕頭 | 廈門 | 소계 | | | |
| 金額 | 14.1 | 3.9 | 1.2 | 1.5 | 20.7 | 19.5 | 252.1 | 292.3 |
| 구성비 | 4.8 | 1.3 | 0.4 | 0.5 | 7.1 | 6.7 | 86.2 | 100.0 |

註: 1986년말 현재 실행 기준, 차관 및 직접투자누계

〈資料〉 稻垣清, 中國의 投資環境, p.18에 의거 작성

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외자도입실적은 中共이 노력하고 기대한 바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중 경제특구들이 허가 또는 계약한 總 外國人투자 件數와 금액 중에서 실제 이행된 것은 상당히 적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데에는 中共의 경제특구가 여타 개도국들의 수출가공지역에 비해 수출의무 過多, 立地, 법제상 미비 등 제반 불리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特區를 비롯한 經濟開放地域의 투자환경 가운데 명목임금수준이

나 기업소득세율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이 아시아지역의 여타 開途國들에 비해 불리한 환경상 제약요인과 함께 經濟特區 외생적인 제반 장치·사회 체제상의 특성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共은 앞으로도 경제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中共의 투자환경상의 구조적인 제약요인들이 단시일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한국수출입은행, 주간해외투자정보>

□ 石油短信 □

日本 10대石油企業의 87년도 경영실적

지난 3월로 회계년도를 마감한 日本의 10대석유 기업들이 최근 87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대기업의 전체판매물량은 13억5천5백만배럴로 86년도보다 2.7% 늘어났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의 호조에 따라 나프타, 경유등의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전체 매출액은 국내시장의 제품가격인하에 따라 전년대비 1.2% 감소한 7조4,544억円에 그쳤다.

그러나, 전체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은 늘었다. 10대기업의 평균이익은 1,097억円으로 작년보다 379억円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이익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 87년도내 원유CIF가격의 안정세지속, △ 87년도 중반기부터 美달러화에 대한 円貨의 강세현상, △ 지난해의 이윤압박요인이었던 高價石油製品의 재고소진, △ 이자율하락과 경영노력에 따른 매출, 경비의 감소와 생산·수송부문의 원활한 추진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익증가의 반이상은 금융부문(96억円)

日本 10大石油企業의 87년도 경영실적

(단위 : 십억円, 백만배럴)

| | 1987 | 1986 | 증감율 |
|------|---------|---------|-------|
| 매출액 | 7,745.4 | 7,839.8 | -1.2 |
| 경상이익 | 109.7 | 71.8 | +53.0 |
| 환차익 | 22.6 | 15.3 | - |
| 세후이익 | 48.0 | 31.5 | +53.4 |
| 판매량 | 1,355 | 1,320 | +2.7 |

註 : 이데미쯔, 日本석유, 동아석유, 흥아석유, 코스모, 공동석유, 키그나스, 큐수석유, 미쓰비시, 제너럴

과 환율부문(73억円)에서 발생하였다. 또, 고가석유제품의 재고소진이나 비용삭감, 기업합병등의 기업합리화노력을 고려하면 판매부문에서의 이익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日本의 石油산업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